

2025
SEPTEMBER

9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KAMT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우)0281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6층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CONTENTS

01 COVER

다양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만나는
제63회 종합학술대회

02 FOCUS

생리학적 검사영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06 INTERVIEW

MC Guy 손명진 회원
인터뷰

제512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연구를 위한 모든 것
Total Lab Solution for you
Hyunil Lab Mate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황래환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다양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만나는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회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정확한 진단과
미래병건의료체계의 중심은

임상병리사

2025 KAMT ULSAN

일시 2025년 9월 20일(토) ~ 21일(일)

장소 울산광역시 유에코

주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관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오는 9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대회장 남상열, 이하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회원이 참여하고 싶은 학술 축제’라는 목표 아래 준비됐다. 특히 학술대회 첫째 날인 9월 20일(토)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UECO 3층 컨벤션홀 A에서는 정책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의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제도화 방향 ▲학제일원화 추진 및 제도화에 따른 방향과 이슈 두 가지 발제를 통해 임상병리사의 제도적 위상과 미래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튿날인 9월 21일(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는 각각 ▲수의학 진단검사 발전-최신동향과 미래 발전 ▲소통이 능력이다: 즐거운 임상병리사 생활을 위한 공감과 연결의 기술 등의 주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UECO 1층 부스전시장 내 강의실에서 생리검사 핸드온 심포지엄이 열린다. 심장 초음파와 뇌혈류 초음파를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검사실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강화를 돕는다.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UECO 203호에서는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환자 중심 채혈 ▲문서관리 자동화 ▲임상병리사의 역할 ▲건강보험수가 ▲공익신

고제도 ▲권익보호 전략 등을 다루는 학술 세션과 함께 1:1 회원 상담, 공익신고 부스 운영, 설문조사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첫째 날 저녁에는 회원 간 교류와 화합을 위한 ‘미팅 페스티벌’과 회원들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나도 가수다’가 진행되며, 학회장에는 선후배·동료와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부스가 운영된다.

협회는 이번 대회를 위해 종합학술대회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QR코드를 통해 일정표, 초록집, 전시장 도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종합학술대회의 사전등록은 **기간 연장 없이 9월 12일(금) 23시 59분까지** 진행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학술대회 홈페이지



유에코 홈페이지



안드로이드 용



IOS(애플) 용

· 행사 일정표
· 초록집
· 전시장 안내
· 종술안내
· 교통안내

종합학술대회 안내사항

- 현장등록 불가/영수증 출력 불가
- 전시장 오픈: 오전 10시
- 특산품교환 및 식사장소: 전시장 내
- 점심도시락: 1회 제공
- 유에코 주차비: 무료
- 셔틀버스 운영: 울산역↔유에코
- 이수시간 및 영수증 출력 방법
 - ✓ 이수 시간 확인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 이수 시간 확인
 - ✓ 영수증 출력
 -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생리학적 검사영역 업무 확대방안에 대하여

“희망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 기 유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라는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사실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된 것이다.” (루쉰 단편소설 ‘고향’ 마지막 구절에서)

루쉰이 단편소설 ‘고향’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바라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희망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두렵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함께 하는 우리들이 있기에 동력을 받는다. 희망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의 바람을 바탕으로 두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희망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지만 그 희망의 끝은 언제나 독립적이고 그로 인해 고독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결국 희망은 인간의 삶에 주어진 굴레이고 번민의 시작이지만 존재의 모든 것일 수도 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8월 7일(목) 5시부터 7시까지 협회관에서 중소병의원 업권 현안 긴급회의가 있었다. 최근 중소병의원 의료현장에서 초음파업무 관련 인력분포가 방사선사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가 있어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의료법은 대한민국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관하여 규율하는 기본법이자 공법이다. 1951년 9월 25일 ‘국민의료법’이라는 제명으로 공포되어 같은 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1962년 3월 20일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법률이다. 1962년에 『의료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1973년 이후에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누더기법이란 오명이 붙어있을 만큼 용어나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단순히 용어나 체계가 뒤떨어져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63여 년간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크게 변화된 국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

현안 회의에서 한 위원은 의사단체는 의사들이 지도를 명분으로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 등을 종속시켜 왔으며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규제하며 의사에게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2025년 현재도 병원의 고용주(의사)에 의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업무체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간호사들은 10여 년 동안 간호법을 추진하여 2025년 6월 21일부터 간호법이 시행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반면 우리 협회는 간호법 12조 간호사업무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명확한 업무영역을 지켰고 의정사태에서 실시되었던 간호사 지원업무 시범사업에서도 채혈, 심전도, 폐기능검사 등 실제 필드에서 진행되는 임상병리사영역을 지켰다.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 범

위 분쟁은 오래된 난제다. 진료보조 범위 등과 관련한 그동안의 갈등은 언론보도와 재판으로 이어지며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겨주었고 국민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서 같은 의료기사 종별에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사이에서도 초음파영역에 관해서는 업무영역이 공존하는 상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상병리사가 실제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심장초음파와 경동맥초음파, 혈관초음파 등에 방사선사협회 회원들이 지속적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분쟁의 여지가 많고 또한 명확한 업무영역에 대한 지침이 결여된 상태이다. 심장초음파 등 검사 영역에 대해서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둘 다 유권해석을 받은 터라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배출이 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원과 고임금 관계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가 일정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방사선사를 초음파(상복부, 하복부)검사, 심장, 경동맥, 갑상선 검사 등을 종합검진과 보험급여 진료 보는데 고용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위주의 일을 고수하며 직접 실시하는 초음파검사를 기피하고 초음파검사를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과도한 인건비를 고려하여 병·의원 수익 증대를 위한 종합검진 등을 유지하기 위해 방사선사를 대거 채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와 아예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이 PA 개념에 방사선사를 고용하여 병·의원 수익을 올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덧붙여 한 위원은 “만약 심장초음파와 경동맥검사 위주의 임상병리사와 초음파를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사선사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사를 채용하는 사례를 낳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결국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두 명을 구분하여 고용하느니 차라리 전체 초음파를 다하는 방사선사를 고용하는게 더욱 효율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현재 이 패턴대로 진행된다면 저희 임상병리사협회 회원들은 종합병원 이하 병·의원에서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김상훈 학회장과 김설화 부학회장은 대책으로 심장초음파 검사와 심전도검사의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심장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해부학적 기능적 이해뿐 아니라 심전도 리듬 해석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심전도와 심장초음파 검사는 검사 방식이 다른 뿐 두 검사 모두 동일한 순환계의 생리학적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심장검사이다.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시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며 영상의 데이터 분석, 저장 그리고 응급처치가 시급한 부정맥 발생 시 즉각적인 리듬을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두 검사에 대한 검사자의 상호 이해도가 높을수록, 보다 정확하고 통합적인 심장 진단이 가능하다.

현재 대학병원급 이상에서 많은 임상병리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심장의 생리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심장의 기능 및 혈액학적 기능을 평가해야 하는 생리학적 기능검사이기 때문이며 바로 임상병리사가 가장 적합한 검사자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앞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시행되는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단순히 ‘초음파진단기 취급’이라는 이유로 심장초음파검사를 일반 초음파와 같은 초음파 종류로 동일시하여 방사선사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주장하고 이뿐 아니라 심전도 교육까지 진행하는 것은 있는 과목을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방사선사의 업무가 맞는지 오히려 의문이 아닐 수 없기에 임상병리사가 업무에 대한 우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5 KAMT 울산 프로그램 시간표

9월 20일(토)											
학술 프리뷰룸 : 204호											
시간	1층				2층			3층	시간		
	전시장		로비	미래 임상병리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정확한 진단과 미래 보건의료체계의 새로운 시작				컨벤션 홀 (A+B+C)	
	부스	포스터 행사장		VIP Board Room	101+102+103호(120)	201호(93)	202호(117)	203호(117)			
09:00 - 10:00	부스전시	포스터 전시	학술대회 접수	국제대표단 회의	국제 심포지엄	연구정책과제 심포지엄	보건복지부 필수교육 (아동인권과 학대예방, 아동학대)		대한임상검사과학회 심포지엄 대한임상검사 과학회지 우수논문발표 및 시상 (컨벤션홀 B+C)	09:00 - 10:00	
10:00 - 11:00						임상면역검사학회 심포지엄	조직세포검사학회 심포지엄	미래융합 심포지엄		10:00 - 11:00	
11:00 - 12:00						임상화학검사학회 심포지엄				11:00 - 12:00	
12:00 - 13:00	국제포스터 발표	점심		국제 학생포럼 심포지엄	광주시회 국제심포지엄	점심		12:00 - 13:00			
13:00 - 14:00	국제 학생 미팅 페스티벌			국제대표단 회의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 협회 심포지엄	공중보건검사학회 심포지엄	임상핵의학검사학회 심포지엄	임상검사정보학회 심포지엄	협회 정책 심포지엄 (컨벤션홀 A)	13:00 - 14:00	
14:00 - 15:00						커팅식 (14:30~15:00)	국제 학생 포스터 발표	임상수혈검사학회 심포지엄		임상유전검사학회 심포지엄	임상생리검사학회 심포지엄
15:00 - 16:00	부스전시	포스터 전시				보건복지부 필수교육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개회식 (3층 컨벤션홀 B+C)	15:00 - 16:00
16:00 - 17:00											16:00 - 17:00
17:00 - 18:00	Keynote speech : 창립에서 미래로 :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60년 역사 										

9월 21(일)										
학술 프리뷰룸 : 204호										
시간	1층				2층				시간	
	전시장		로비	미래 임상병리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정확한 진단과 미래 보건의료체계의 새로운 시작				
				VIP Board Room	101+102+103(120)	201(93)	202(117)	203(117)		
	부스	포스터 행사								
09:00-10:00	생리검사 헨즈온 심포지엄	포스터 전시	학술대회 접수	국제대표단 회의	보건복지부 필수교육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주제 심포지엄 I	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회 심포지엄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심포지엄	09:00-10:00	
10:00-11:00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 협회 심포지엄	임상미생물검사학회 심포지엄			10:00-11:00	
11:00-12:00										11:00-12:00
12:00-13:00				점심						
13:00-14:00	부스전시	국내포스터 발표		국제행사		임상혈액검사학회 심포지엄	실무연수강좌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심포지엄	13:00-14:00	
14:00-15:00						주제 심포지엄 II				14:00-15:00
15:00-16:00		포스터 전시					슬기로운임상병리 퀴즈쇼			
16:00-17:00						16:00-17:00				
17:00-18:00	폐회식 (1층 전시장)								17:00-18:00	
본 프로그램은 학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합학술대회 학술프로그램에 참석하시면, 품질인증 및 수탁기관 인증을 위한 외부기관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공지사항 참조 부탁드립니다.										
관련안내 : 「바로가기」클릭										



제510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8월 8일(금)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10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8명이 참석해 성원됐고 부장 26명 중 18명, 총원 45명 중 36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25년 시도회,분과학회,산하단체 실무자 교육 개최 보고, 협회 여의도 사무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진행 보고, 후원사 간담회 및 전시부스 위치 추천식 개최 안내, 2025년 제511차 상임이사회 개최 안내, 2025년 제186차 정기이사회 개최 안내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5년 1기 확정 부가세 납부, 정기예금(임평원기금) 재예치, 2025년 재산세(건축물분) 납부, 2025년 상반기 온라인 보수교육 교부금 정산, 시도분과 사용 중단 및 사용 목적 확인 불가 법인계좌 해지, 서울시회 회원문화체험 행사 찬조금 지급, 회의 식비 초과 내역 보고 ▲학술부 종합학술대회 진행사항 보고, 2024년 연구정책과제 진행사항 보고의 건, 2025년 2차 연수강좌 개최 안 ▲교육부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1차 정기이사회, 온라인 보수교육 촬영 계약 내용 변경의 건, 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사전등록 오픈의 건, 국군의무학교 협회비 납부 독려의 건, 전자출결 물품 지원 사업 종료 안내 및 관련 협조 요청 ▲국제부 제63회 종합학술대회 대표단회의의 건, JAMT 단기트레이닝 참가자 선정 완료의 건, 2025년 교차트레이닝 관련 참가자 모집의 건 ▲공보부 온라인 병

리협보 7월호 발행의 건,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사전등록 안내 문자 발송의 건, 제64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홍보 동영상 제작의 건, SNS 홍보의 건, 보도자료 및 축사 작성의 건, 회원고충처리 현황 보고의 건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 협회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건,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페이지 및 초록접수 페이지 오픈의 건, 7월 엠포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법제부 2025년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 개최 보고의 건 ▲정무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직능단체 대표단 간담회 참석의 건 ▲대외협력부 2025년 제63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현황 ▲중소병의원부 중소병원발전위원회 5차 회의 개최의 건, 중소병원의원부 2차 회의 개최의 건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공보부 협조의 건을 진행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조직세포검사학회 조직, 세포, 육안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시행세칙’ 개정의 건, ‘포상·징계 규정’ 분리의 건, ‘보수교육 운영세칙’ 개정의 건,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운영규정’ 개정의 건,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시행세칙’ 개정의 건, ‘회의수당 지급세칙’ 개정의 건, ‘적립기금 운영규정’ 개정의 건, ‘보수교육 운영세칙’ 개정의 건이 진행됐다. 2호 안건은 일부 유보, 3호, 7호 안건은 유보됐고 다른 안건은 통과했으며 이후 제510차 상임이사회는 폐회했다.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8월 9일(토) 오후 2시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직위원회에는 남상열 대회장과 이도왕 조직위원장을 포함해 총 39명이 참석했다.

각 분과별 보고 및 공유사항 발표로는 ▲운영분과 행사 총괄 운영 관련 세부사항 발표, 분과별 주요 고려사항 참고 안내 ▲학술분과 포스터 전시 및 발표 운영 계획 발표, 퀴즈쇼 운영 관련 계획 발표 ▲홍보분과 대외 홍보 현황 및 추진 계획 발표, 이벤트 행사 및 제작물 등 추후 제작 예정 안내 ▲등록분과 등록부스 운영안 발표, 각종 인쇄물 및 종합학술대회 전용 페이지 오픈 안내 ▲전시분과 부스종류별 업체 접수 현황 발표, 전시장 내 설치 운영안, 업무분장 공유 ▲국내의전분과 추후 업무계획 안내, VIP 및 내외빈 의전 업무분장표 안내 ▲국제의전분과 VIP 및 내외빈 의전 관련 업무분장표 안내, 학회장 내 의전 동선(예정) 안내가 진행됐고 이후 PCO 업체의 진행사항 발표와 분과별 토의가 이어졌다.

조직위원회 각 분과는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종합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진 후 회의를 마쳤다.

중앙회 동정

- 08월 02일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
- 08월 07일 중소병의원 업권현황 긴급회의
- 08월 08일 제510차 상임이사회
- 08월 09일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
-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교육 및 정책간담회
- 08월 12일 정보통신부-클라우드 업체 회의
- 08월 13일 제2차 한일교류공로자회의
- 제7차 보험부 회의
- 제5차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인증 TF 회의
- 08월 14일 학술상심사위원회 회의

- 08월 19일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
- 08월 20일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 운영회의
- 08월 21일 제6차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
- 08월 22일 제1차 국가시험원시험위원회 회의
- 08월 26일 정보통신부 회의
- 제5차 전산시스템 재구축 TF 회의
- 08월 27일 2025년 후원사 간담회 전시부스 위치 추천식
- 08월 29일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
- 08월 30일 제7차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예정

[illegible]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월)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18일(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모호한 업무범위로 반복돼왔던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과 충돌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28대 집행부 출범 이후, 이광우 협회장과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2024년 7월부터 김윤 국회의원실이 주관한 보건 의료인력정책자문회의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 14개 보건 의료 직능 단체는 치열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설치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며, 협회는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번 법안은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보건 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후원사 간담회 및 전시부스 위치 추첨식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8월 27일(수)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 클럽홀에서 2025년 후원사 간담회 및 전시부스 위치 추첨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멘스 헬시니어스(주)와 한국로슈진단(주)을 포함한 38개 후원사가 참가했다.

행사는 내빈 및 후원사 소개로 시작해 이광우 협회장의 환영사와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남상열 대회장의 인사말,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소개, 전시부스 위치 추천식,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한국로슈진단(주), 지멘스 헬시니어스(주), 한국벡크만콜터(주), (주)비오메리오킨리아,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시스멕스코리아(주), (재)씨젠의료재단, (주)한독에 수여됐다.



이어, 제주에서 개최 예정인 제 64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홍보 동영상 시청과 제64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대회장인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정무상 회장의 소개가 이어졌다.

행사는 단체사진 촬영과 저녁식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행복해야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다” 임상병리사이자 래퍼, MC Guy 손명진 회원 인터뷰

손명진 회원은 병원과 무대, 봉사 현장을 오가며 세 가지 얼굴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의 삶을 묶는 한 줄의 철학은 단순하다.

“행복해야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다.”

병원 안팎을 넘어, 세상 곳곳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는 MC Guy, 손명진 회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임상병리사와 래퍼라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걷고 계십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두 길을 병행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성모병원 병리과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래퍼 MC Guy로 활동하고 있는 손명진입니다. 임상병리사로는 올해 19년 차에 접어들었고, 2006년부터 병리과에서 일해왔습니다. 음악은 사실 어릴 때부터 제 삶의 중심에 있었지만, 직업을 선택하면서 잠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싱글 앨범 LOVE YOU를 발표하면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열렸죠. 그때부터 병원과 무대를 오가며 두 가지 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두 무대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삶의 일부입니다.

Q. ‘MC Guy’라는 활동명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많은 분들이 ‘왜 Guy일까?’ 궁금해하세요. 단순히 ‘랩하는 녀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 네 번째 싱글의 제목이기도 한 ‘가희(歌喜)’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노래 가(歌), 기쁨 희(喜). 노래하는 기쁨, 음악으로 얻는 행복을 담은 거죠. 고등학교 시절부터 쓰던 이름인데, 당시 팬카페도 있었고, 저를 기억해주는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에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름을 바꿀까도 고민했지만, ‘MC Guy’는 저의 음악적 정체성이자 제 청춘의 기록이기도 해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Q.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적 형편이 어려워 장난감을 갖고 싶어도 늘 문방구 앞에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문방구 진열장을 들여다보는 게 하루의 낙이었죠. 성인이 되어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그때 하지 못했던 ‘한푼이’처럼 장난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방 가득 쌓인 장난감을 보며 ‘어릴 적 나와 같은 아이들이 지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안산시청에 전화를 걸어 봉사할 곳을 찾았고, 그렇게 처음 지역아동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9년 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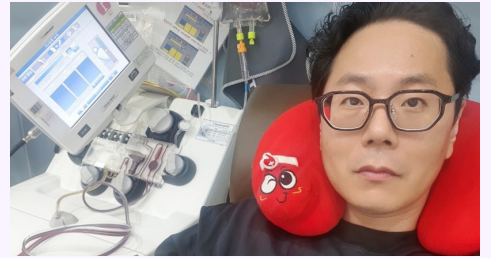
Q. 봉사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나요?

저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히 아동센터를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50여 곳을 돌았고, 내년이면 만 10년을 채우게 됩니다. 장난감을 직접 준비하고, 아이들 앞에서 하나하나 나눠주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제게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나눠줄 수 있었죠. 아내가 직접 차를 몰고 함께해주고, 두 아이도 어릴 때부터 봉사 현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영상을 찍으며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활동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해온 여정이라 더 뜻깊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하다 그만두겠지’ 했는데, 벌써 57번째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힘든 줄 모르고, 오히려 제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Q. 헌혈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129번 헌혈을 했습니다. 대부분 혈소판 헌혈이에요. 백혈병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처음엔 바늘이 무서워 헌혈을 기피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이제는 루틴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공연 무대

에 서면 늘 헌혈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혈액이 부족하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고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죠. 저는 임상병리사로서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헌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병리과에서 근무하며 느끼는 보람은 무엇인가요?

병리과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지만, 수술장에서 나온 조직을 다루며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가 꼼꼼하게 제작한 슬라이드 덕분에 교수님들이 병을 판독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치료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임상병리사의 첫 번째 덕목은 꼼꼼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함입니다. 작은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실습생들에게도 늘 ‘일상생활에서는 덤벼거려도, 일할 때만큼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음악과 봉사활동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어릴 적엔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주겠다거나, 부자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꿈을 꾸니까요.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경쟁과 현실 속에서 점점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면 기부하겠다’는 말은 끝내 실천하지 못할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지금 내가 가진 만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활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나도 해볼까?’ 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Q.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대회 무대에 서게 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작년 송도 무대에서 회원들과 함께한 경험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선배, 후배님들과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웃던 그 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울산 무대에서도 ‘미팅 페스티벌’ 사회와 공연을 맡게 됐는데, 참가한 열 팀 모두 소홀히 하지 않고, 각 팀이 준비한 무대를 빛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 공연 시간을 줄이더라도 모든 참가자들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음악적 꿈은 무엇인가요?

제 나이는 이제 마흔여섯이지만, 여전히 무대에 대한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음악 시상식 ‘MAMA’ 무대에 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음악 활동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 전성기라고 믿습니다. 살아 있는 한,

꿈은 계속됩니다.

Q.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임상병리사를 ‘피 뱉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리과, 진단검사, 세포·분자검사, 면역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올리면 의사와 간호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안에는 임상병리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설 때도 늘 ‘저는 임상병리사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음악과 봉사활동을 통해 임상병리사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Q. 마지막으로 후배 임상병리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어릴 적 꿈을 간직한 채 병원 일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병원 일과 병행하면서도 꿈을 충분히 펼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행복하고, 지금 실천하는 겁니다. 행복해야만 선한 영향력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손명진 회원은 인터뷰를 마치며 “앞으로도 제 음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싶다”며 유튜브 채널 ‘MC guy (엠씨가이)’와 곧 선보일 신곡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r.seegenemedical.com/>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귀 병원의 진료가 카자흐스탄(중앙아시아)으로 진출합니다!”

해외의료 국제협진과 PPCC (Pre Post Care Center)

(재)씨젠의료재단과 오픈헬스케어(주)가 운영하는 해외 메디컬 센터를 기반으로,
 한국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진이 협력하여 해외 환자들에게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자흐스탄 의료 국제협진 특징점

- 01 코리안 메디칼 센터 알마티 운영
- 02 최첨단 의료장비 완비 (MRI, CT, 내시경, 진단검사의학 · 분자진단 · 병리 검사 등)
 -  MRI 3.0T (중앙아시아 최초 도입)
 -  CT 256 슬라이스 (카자흐스탄 최초 도입)
 -  내시경 검사
- 03 안정적인 해외 환자의 진료와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

PPCC (Pre Post Care Center, 사전 · 사후관리센터)

- 해외 환자 진료 및 관리 프로그램 -

사전 관리 Pre Care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 기초 검사 및 진단 실시
- 통역 및 행정 서비스 지원
- 한국 진료 및 치료 위한 준비 지원

국제협진



진료 장소
 <한국> 협력 의료기관

- 공동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 시설 및 인력 · 장비 공유

사후 관리 Post Care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 치료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원격 진료를 통한 환자 상태 공유
- 필요 약물 및 재활 치료 현지 제공

• 해외의료 국제협진 협력 : 오픈헬스케어(주) ☎ 02-2114-8011 🌐 <https://www.ohc.global> ✉ ohc@ohc.global

(재)씨젠의료재단은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오픈헬스케어(주)와 함께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의료 해외진출 · 해외환자의 국내유치**에 힘쓰고 있고, **한국의료기관과 해외환자의 진료를 위해 오픈헬스케어와 협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SMF Central Laboratory
 (2025. 8월 준공 예정)



부산경남검사센터
 Busan Laboratory Center



대구경북검사센터
 Daegu Laboratory Center



광주호남검사센터
 Gwangju Laboratory Center



대전충청검사센터
 Daejeon Laboratory Center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Almaty
 (Kazakhstan, Almaty)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LA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LA
 (USA, Los Angeles)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하노이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Hanoi
 (Vietnam, Hanoi)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회원 문화체험 행사
‘영화야! 여름을 부탁해~’ 실시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문선)가 8월 6일(수) CGV 대학로에서 2025년도 회원 문화체험 행사 ‘영화야! 여름을 부탁해~’를 실시했다.

이번 회원 문화체험 행사는 참가 신청 2시간 만에 선착순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회원들의 열렬한 호응이 있었다. 행사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고생하는 서울시회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1부 영화 관람과 2부 호프 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행사 1부에서는 상영관 두 곳을 대관하여 영화 ‘좀비탈’을 단체 관람했다. 이날 극장을 찾은 서울시회 회원 약 250여 명은 준비된 간식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 관람 이후, 행사 2부에서는 서울시회에서 마련한 자리를 통해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회는 8월 23일(토) 2025년도 제3차 보수교육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진행했으며, 10월 19일(일)에는 한마음 단합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근전도 실습 심화교육 실시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가 7월 17일(토) 대구시 임상병리사 회관에서 근전도 실습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실습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 당일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신청자가 참석했다.

대구시회는 이번 실습이 이론으로만 접하던 내용을 직접 경험하며, 근전도 해석 능력을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 앞으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알찬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PCR 실무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가 임상병리사의 실무 역량 강화와 최신 분자진단 기술 습득을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PCR 실무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회원들의 실무경험을 위해 PCR 장비 전문업체인 월드메디칼의 장소 및 장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PCR 기초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PCR 기초 이론 ▲핵산 추출 및 증폭 실습 ▲장비 사용법 및 데이터 해석 등으로 임상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됐다.

본 교육을 주도한 김극준 학술부회장은 DNA 추출 실습부터 PCR 및 qPCR 실험, 결과 분석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로 내용을 구성했고, 참가자들은 기초부터 응용까지 직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능력을 쌓고, 그 과정에서 상호 노하우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실무 자신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회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분자진단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진단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앞으로도 Sequencing, NGS, Lumines 등 다양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자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전 과정 수료자에게 교육 이수증이 발급됐다.

교육 현장을 방문한 조대현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실무교육을 지속 강화하여, 현장 전문성과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5년도 사랑나눔
헌혈캠페인 실시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가 8월 7일(목) 광주 충장로 헌혈의 집에서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8월 1일(금)부터 9월 30일(화)까지 광주시회 임상병리사 회원이 광주광역시 내 헌혈의 집에서 헌혈 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헌혈 상품에 추가 1개 선택 상품을 추가로 증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광주시회에서는 캠페인 종료 후 일괄로 커피쿠폰 1만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또한 헌혈증을 헌혈의 집에 기부할 경우 광주시회에서 추가로 커피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정훈 회장은 “한 번의 따끔으로 혈액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캠페인을 광주시회 회원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혈액이 부족한 현 상황에 광주시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2025년 수혈전문임상병리사 워크숍 및
수련교육 실시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학회장 김은영)가 8월 9일(토),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중강의장에서 수혈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위원장 김진욱) 주관 '2025 수혈전문임상병리사 워크숍 및 수련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직 수혈전문임상병리사 42명과 미래의 전문가를 꿈꾸는 수련생 45명이 함께 모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수혈전문임상병리사 교육 과정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마지막 회차에 함께 진행된 워크숍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였다.

워크숍에서는 ▲In-hospital support of cell and gene therapy(성균관 의대 조덕 교수) ▲검상적혈구병에서의 혈액공급 관련 이슈(국립중앙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혜련 전문의)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은행 수탁검사 및 수혈의학 물질 제조 경험(서울대학교병원 강지상) ▲수혈전문임상병리사 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서울동부혈액원 김진욱) 등 수혈의학 최신 동향과 임상 현장의 경험이 폭넓게 공유됐다.

그리고 수련교육 마지막에는 5회차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45명의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김은영 학회장은 “무더운 여름 동안 교육을 받느라 고생 많았고, 시험을 잘 준비해 오는 11월 1일 추계학술대회에서 합격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혈전문임상병리사로서 활발히 활동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워크숍과 수련교육은 수혈의학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 지식·경험의 교류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학회는 앞으로도 교육·연구·임상 지원을 통해 국내 수혈검사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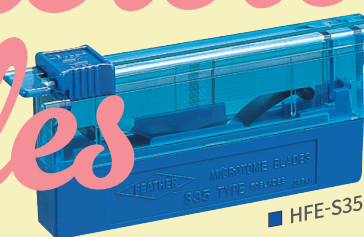
Microtome bla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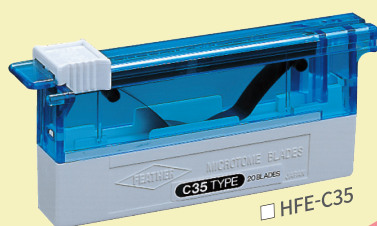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
hyunil-la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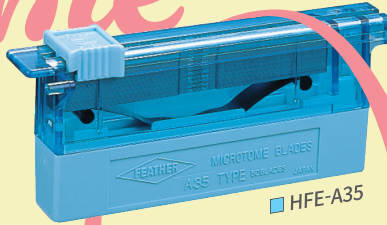
쇼핑몰
www.
lab-ma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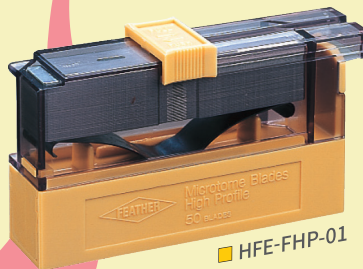
HFE-S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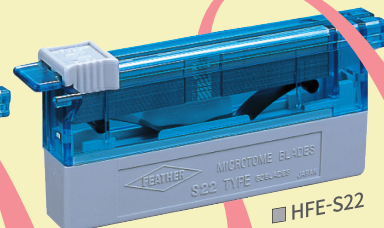
HFE-C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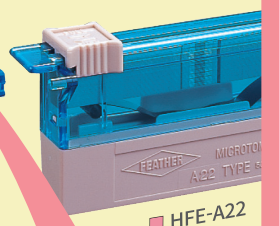
HFE-A35



HFE-FHP-01



HFE-S22



HFE-A22

원하시는 제품의 Sample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BEST ○ = GOOD	Soft tissue	Hard tissue	Cryostat	Thin sectioning	Ribbon sectioning
HFE-S35	■	◎		○	○	
HFE-A35	■	○	◎	○		○
HFE-S22	■	◎			◎	
HFE-A22	■	◎			◎	○
HFE-C35	■			◎		
HFE-FHP-01	■	◎	○			◎



호남권 실무자교육 개최 “실력으로 증명하고 법제화로 인정받자” 실천의 장 열려

대한감염안전관리임상병리사회(회장 손재형)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3개 시도회가 공동 주관한 ‘호남권 검사실 감염안전관리 실무자교육’이 지난 7월 5일 조선대학교병원 하중현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실력으로 증명하고, 법제화로 인정받자’는 감염안전관리임상병리사회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로, 준비부터 운영까지 협회의 산하 단체와 시도회가 공동 참여해 ‘회원이 주인공’이라는 운영 철학을 실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이해, 감염사례 기반의 실무 적용법, 협회 현안에 대한 소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우리의 실력 증명이 곧 제도화를 이끄는 명분’이라는 인식이 공유되며, 감염안전관리에서 임상병리사의 제도적 위상 정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손재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감염안전관리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임상병리사의 필수 덕목이며,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료현장의 기본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이 우리 스스로의 전문성과 가치를 높이고, 제도적 기반 마련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참석률과 시도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유관단체들이 감염안전관리임상병리사회에 협업을 제안하면서,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곧 목표가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임상은 물론 비임상 분야까지 감염안전관리 전문직 직역으로써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번 행사가 시도회와의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저개발국가 감염병관리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감염안전관리임상병리사회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홍양희)은 저개발국가의 감염병관리 선진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8월 11일(월)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전략적 업무 제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국제보건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공공보건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상호 발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염병관리 현장 연수 및 지침 개발 협력 ▲진단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연수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시설 건립 지원 ▲의료시설 고도화 및 운영 지원 협력 ▲기타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저개발국가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내 전문 인력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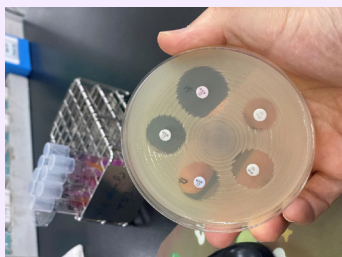
손재형 회장과 홍양희 단장은 감염병 대응은 더 이상 단일 국가의 과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에 뜻을 모으고, 이번 협약이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 양 기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국제보건 분야의 새로운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평의 지혜, 수직의 한계” 미생물에게 배우는 생존의 지혜

대한임상병리사회 협회 학술이사 최 병 후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면 검사실엔 실습생들이 온다. 매해 방학 때마다 오는 친구들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학생들의 나이는 매년 같지만 학생들과 차이는 나이는 책방에 쌓이는 책처럼 해마다 1년씩 높아져 간다. 어느 작가가 우리가 사는 시간은 물위에 떨어져 솟아오른 물방울 같다고 했다. 실습생들과 차이는 나의 나이를 볼 때마다 흐르는 시간은 물위의 물방울 같이 한 순간의 찰나인 듯 짧게 느껴진다.

실습을 하던 실습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검사하시는 다제내성균은 위험한 세균들이죠?”
“다제내성균(MDRO)은 주요 항균제에 내성이 있고 접촉 전파가 잘 되어서,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고 선제력리가 중요한 세균들이지.”
”그래도 세균 입장에서 항생제에 대항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진화의 방법이겠죠?”

맞다. 우리가 ‘위협’이라 규정하는 다제내성균은 단지 생존을 위한 전략을 택했을 뿐이다.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많은 공부를 하고, 사회적 스펙을 준비하듯 말이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덕분에 가능하듯 이 인간의 유전은 그렇게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유전(Vertical Transmission)을 통해 세대를 넘어 전달되었다. 이 본능은 우리사회에 자연스레 가족 중심의 사회, 체계적 질서, 경쟁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미생물은 부모 없이도 유전 정보를 나눈다. 형질전환(Transformation),

형질도입(Transduction), 접합(Conjugation) 같은 수평적 형질전달(Horizontal Gene Transfer, HGT) 메커니즘을 통해, 옆 세균에게 유전자를 복사한다. 항생제 내성 유전정보를 가진 플라스미드(Plasmid)는 ORI(Origin of Replication)라는 복제 시작점에서 플라스미드를 인식하고 복제를 수행하는 과정이 마치 USB를 꽂으면 수분 내에 복사되는 시스템으로 자신이 가진 생존의 지혜를 독점하지 않고, 때론 전혀 다른 종에게 나눠준다.

이러한 생존 전략은 유전체 가소성(Genomic Plasticity)과 집단 적응력(Adap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화의 방식이다. 사람의 수직적 유전처럼 30년이라는 한 세대의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특정 개체만 살아남지 않아도 된다.

모두가 함께 바뀌고, 살아남는다. 반면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경쟁 중심이다. 학력, 재산, 지위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개인의 가치를 평가한다. 앞서가기 위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때로는 남보다 올라서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하루를 견딘다.

그러나 과연 진화란 오직 ‘더 강한 자’만의 생존일까?

진화는 선택압에 적응하는 단일 개체의 생존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유전적 공유를 통해 집단 전체가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미생물은 우리에게 말한다. 경쟁이 전부만은 아니라고. 가장 효율적인 생존 방식은 오히려 ‘함께 변화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남보다 앞으로, 높이 그리고 빨리 가려고 한다. 앞서가느라 나를 묵묵히 바라보는 소중한 가족을 돌아볼 틈도 없이 바쁘다. 하지만 가끔은 주변을 살피고, 필요한 정보를 나누며 함께 적응하는 수평적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실습 나온 학생들은 우리 임상병리사의 미래이다. 비록 짧은 시간의 인연이지만 그나마 먼저 지나온 선배로서 미생물의 수평의 지혜를 설명하고 인생을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전달해주고 싶은 요즘이다.

2025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회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접수기한 2025년 9월 26일(금) 18:00까지 전송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배송 주소

♥ 제511호 당첨자

이번호 가장 좋았던 기사

2025 KAMT 울산 Plenary Lecture 연자 차경호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명예학회장을 만나다

■ 이현용 회원 / 전화번호 : 72387

차경호 명예학회장 인터뷰를 읽고 나니, 한 사람의 꾸준함과 성실함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경호 학회장님은 특별히 뛰어난 재능보다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쌓아온 태도로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강조하셨고, 후학들에게도 단순히 기술적 능력을 넘어 환자 중심의 사고와 임상의 선생님과 소통을 강조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협회의 역사 보존과 선배들의 뜻을 후배들에게 잇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우리 직역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계영 회원 / 전화번호 : 44317

차경호 학회장님께서 35년동안 임상병리사로서의 삶에서 느끼신 것들과,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연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덧 10년차를 지나 임상병리사의 길을 걷고 있는 저에게 마음의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차경호 학회장님의 젊은 시절 때, 박정준 선생님께서 해주신 진심어린 말씀이 학회장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늘 좋은 말씀과 공부의 동기를 항상 심어주시는 동의과학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임상병리사의 대선배님, 존경하는 여선희 이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더 늦기전에 공부하고, 자기계발에 힘쓰라며 칭찬과 조언을 아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도 스스로의 발전에 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니다. 저도 이사님의 말씀을 늘 되뇌이면서 자신의 계발에 힘쓰며, 앞으로 임상병리사가 될 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저의 사랑스런 조카 보름이에게 좀 더 나은 병리사의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NS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및 SNS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카카오톡채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스타그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회원소식을 전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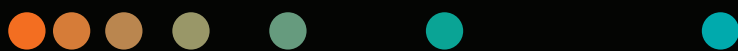
회원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kamtreporter@daum.net]로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병리협보에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Atellica® CI Analyzer

Integrated Chemistry and Immunoassay Analyzer

siemens-healthineers.com/atellica-ci-analyzer



QR700002239

Small Size. Big Impact.

임상화학 · 면역 검사 통합 솔루션

Atellica® CI Analyzer 장비는 임상화학 · 면역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며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시스템 기능 및 특징점

- 독립적 운용 형태 임상화학 · 면역 검사 동시 수행 – 검체 로딩 위치 동일
- 검체 저장 공간 최대 120 검체 (60 input / 60 output)
- 시간당 검사 처리
 - 🧪 생화학 : 1000 tests/hr (일반화학 600, 전해질 400)
 - 🩸 면역 : 120 tests/hr
- 시약 장착
 - 생화학 : 총 70개 포지션 (Single & Dual reagent kit)
 - 면역 : 총 40개 포지션 (주시약 20 / 보조시약 20)
- 응급 검체 처리 검체 로딩 후 1분내 검사 시작
- Atellica® Solution과 동일 시약 플랫폼 백업 기능 효과 및 시약 관리 편리성

새로운 소프트웨어 형태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유저 인터페이스

- 앱 형태로 검사실별 특화된 메뉴 구성
- 샘플 관리 추적성 강화
- 환자, 칼리브레이션, QC 결과 통합 관리



8월 언론보도


의학신문

2025.08.24.

“임상병리사, 기술 변화 · 통합돌봄 · 미래 역할 대비하자”

대한임상검사와학회, ‘임팩트 세미나’ 개최

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 “4차산업혁명, 대응 없다면 도태” 우려

의료계도 4차산업혁명으로 의료AI · 디지털헬스케어 · 바이오테크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춘 준비 없이는 임상병리사가 도태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임상검사와학회는 지난 23일 동남보건대 혜정관 1층 대강당에서 ‘미래를 여는 임상검사와학의 힘’이라는 주제로 ‘임팩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임상병리검사의 미래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기술발전에 발맞춰 대응하지 않으면 임상병리사 직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원문 보기]


기사를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개 시도회 SNS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과 친구추가 해주세요!

부산시회

울산시회

광주시회

경기도회

인천시회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 해주세요!

강원도회

전북도회

경북도회

충남도회

경남도회

서울시회

강원도회

대구시회

충북도회

광주시회

경남도회

경기도회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친구추가 해주세요!